



世界人口 40億돌파

徐 星 英

60년대초 30억 돌파의 충격을 경험한지 불과 10여년, 세계인구는 드디어 40억을 넘어섰다. 미국의 非營利기구인 人口관계자료국(PRB)이 제출한 한 보고서에 의하면 세계인구가 40억을 돌파한날은 3월 28일. 앞으로는 10년마다 10억씩 늘어 2101년이면 현재의 2배인 80억이 되리라는 추산이다. 이같이 인구가 성장해 나간다면 세계는 머지않아 식량자원의 부족, 에너지難, 환경오염, 자연파괴등으로 멸망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게 학자들의 주장이다. 이같은 인구문제의 해결은 크게 나누어 出産자제를 억제하는 일과 이미 태어난 생명을 먹여살리는 식량자원의 확보등 두가지 국면으로 집약할 수 있다.

40억의 인구라면 한줄로 뉘일때 지구에서 달까지 여덟번 왕복할 수 있을만큼 엄청나다. 인구 40억까지의 증가추세를 보면 1850년에 10억이던 인구가 1930년 20억, 1960년 30억, 1976년에는 40억으로 증가되었다. 즉 19세기 종전이후 인구가 10억씩 증가하는데 소요된 시간이 80년에서 30년, 30년에서 16년으로 줄어든 것이다.

미국의 인구관계자료국(PRB) 보고서는 1초에 2.25명, 1분에 1백 35명, 하루에 19만 5천

명씩 증가하는 세계인구가 1989년에는 50억이 될 것이라고 추산하고 있다.

최신 유엔人口 연감 역시 세계의 연간증가율이 1.9%로 매년 7천2백만명씩 늘어나 2010년이되면 현재의 2배인 80억이 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인구증가율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中南美가 2.9%, 아프리카가 2.5%, 아시아가 2.1%이다. 이상 3개洲는 모두 세계평균 증가율1.9%를 넘고있다. 가장 인구증가율이 높은 中南美의 경우 국토에 비해 인구가 적은 아르헨티나, 우루과이등이 적극적인 인구증가 정책을 펴으로써 더욱 인구증가를 부채질하고 있다. 아프리카의 경우 45개국중 12개국이 3% 이상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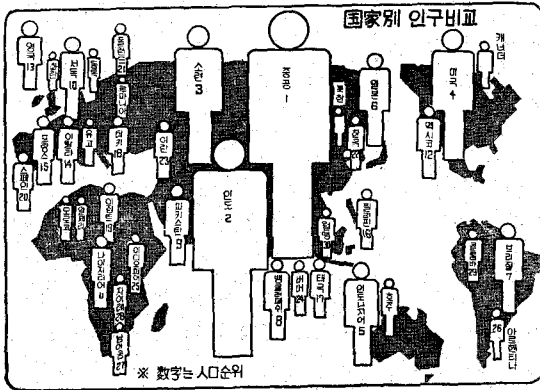
문제가 더욱 심각한 곳은 아시아쪽이다. 中南美의 인구 3억 1천 5백만과 아프리카의 인구 3억 9천만을 합해 보아도 세계 전체인구의 18.2%에 불과한데 비해 아시아의 인구는 전세계의 56.7%인 22억 6백만명에 이르기 때문이다. 이 지역 인구억제에 가장 큰 장애물이 되는것은 前近代的인 사회, 경제구조다.

세계인구 40억 돌파의 충격은 곧바로 식량고갈에 대한 충격이다. 식량위기는 전인류의 생

◇各國의 人口

(74년 UN人口 관계 자료.)

나	라	인	구	나	라	인	구
1	中 共	82,496	16	필 리 핀	4,145		
2	印 度	58,605	71	泰 國	4,102		
3	蘇 聯	25,206	18	터 키	3,827		
4	美 國	21,190	19	이 집 트	3,641		
5	인도네시아	12,758	20	스 페 인	3,522		
6	日 本	10,967	21	폴 런 드	3,369		
7	브 라 질	10,424	22	한 국	3,345		
8	방글라데쉬	7,499	23	이 란	3,195		
9	파 키 스 탄	6,821	24	버 머	3,031		
10	西 獨	6,204	25	이디오피아	2,723		
11	나이지리아	6,127	26	아르헨티나	2,050		
12	멕시코	5,811	27	南 阿 共	2,492		
13	英 國	5,541	28	자 이 레	2,422		
14	이 탈 라	5,536	29	콜 롬 바	2,395		
15	프 랑 스	5,250	30	越 盟	2,324		



存과 미래를 위협하는 문제로 제기된 셈이다.

지난 7년간 年人口증가율은 3%에 달한 반면 식량 증산율은 2% 안팎으로 인구나 식량 간의 겹은 날로 넓어져만가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開發國은 그들의 국민이 필요로 하는 식량의 절대량을 生産하지 못하고 있어 식량 위기는 바로 開發國의 위기가 되고있다. 맥나리 世界銀行 총재도 식량위기 해결을 위해서는 우선 開發國이 식량증산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현재 전세계의 식량비축량은 불과 31일분으로 추산되며 통계에 의하면 전체 開發國인구의 약 40%인 10억이 기아와 영양실조로 시달리고 있다.

식량문제 전문가들은 과도한 인구증가와 영농기술의 낙후 및 공업분야에의 투자집중으로

인한 농경지의 감소와 농업에 투자할 기술자 및 자본의 不足현상이 開發國의 식량증산을 방해하는 요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설상 가상으로 세계식량의 主공급원인 미국과 캐나다의 일기불순은 75~76년의 곡물수확을 감소시킬 것으로 전망되어 開發國이 수년내에 기아에서 해방되기는 어려운 형편이다.

세계식량 농업기구(FAO)가 지난 74년 「제 2차유엔개발 10년계획」에 맞춰 작성한 「1971~1980년 식량증산 예측」에 의하면 이 기간중 年평균 식량 증가율은 59~69년의 2.8%보다 뒤진 2.5% 이는 세계식량생산량의 34.8%를 차지하는 선진국의 증가율이 60년대의 2.7%에서 70년대에 2.2%로 떨어지리라는 예측에 근거를 두고 있다.

따라서 80년대에 開發國을 중심으로한 영양 부족상태는 미결과제로 남아 세계인구중 61%가 영양실조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암담한 전망이다.

특히 매년 수만명씩 死亡者를 내고 있는 印度와 방글라데쉬는 폭발적인 人口증가를 보이고 있는데다 개간할 땅마저 한계점에 도달, 식량증산의 앞날은 극히 어둡다. 그밖에 中 共, 태지니아 등이 농민의 집단이동, 집단농장 등 특수영농방법을 채택했다.

현재 지구상의 총 경작지 면적은 약 40억에 이키인데 반해 牧草地를 비롯한 未개간지는 약 70억 에이커에 달한다.

그러나 이런 空閑地의 대부분이 식량이 절실히 필요한 開發國에서는 거의 바닥이 난 반면 식량이 남아도는 미국, 濠洲 및 캐나다 등에 몰려있다.

따라서 늘어나는 입과 모자라기만하는 식량난의 수요 不安定을 해소하려면 開發國이 중심이 된 폭발적인 人口증가를 억제하고 이들이 정치사회적 개혁을 통해 보다 책임있게 식량증산에 임해야 될 것이며 先進國들은 開發國을 지원하기 위한 식량비축확보에 인색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